

파괴된 영혼 그리고 관계성 형성

캐로린 타운스 OFS(Carolyn D. Townes, OFS)

국가형제회 정평환담당

성소(증가), (건전한)관계성, (원활한)소통은 앞으로 3 년동안 국가형제회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세가지 주제이다. 프란치스칸에게 이 세 주제들은 똑같이 중요하다. 얼마 전에 미조리 주 세인트 폴에서 있었던 국가형제회 (대면) 평의회 에서 이 주제들을 갖고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나는 “성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보다 더 원활한 소통방법으로 건전한 관계성을 맺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국가형제회 정평환분과 담당자로서, 나는 단절된 인간관계라든지 소통의 부재가 성소에 이르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다. 이런 현상은 재속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수도회나 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다. 건전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성장하고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재속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0 여년동안 회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회원은 형제애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하도록 할 것이다.” (회칙 13 조)

관계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둘 이상의 개념, 대상이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혹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행위를 주고 받는것”을 말한다. 나는 이 “의식하고” “행동한다” 라는 말이 마음에 든다. 이 두 낱말은 관계를 맺고 연결시키는 두 개념이다. 예컨대 직장내 상사나 본당신부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직무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 주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절히 대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에는 관계성이 단절된 예가 많고, 남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예가 흔히 있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성을 맺고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코로나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은 생각할 여유가 없게 되었다. “우리”라는 말은 그 의미가 축소되었거나 실종되 버렸다. 우리는 하느님을 그 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믿는다. 사람들 상호간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결코 개별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이라면 그 길은 아주 넓은 길이 될 것이다:예수님은 우리를 둘 씩 짝지어 파견하셨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에서 파괴된 영혼들이라 할 수 있다. 죄로 부서지고 슬픔으로 찢어지고 병으로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으로 망가지고.. 우리는 이 파괴된 상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잊고 있다. 관계성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이 관계성의 모델인 삼위일체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속감이 우리를 생활하고, 활동하고 존재하게 한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은 관계성 안에 살도록 불러 주신 하느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었다.” (회칙 14 조)